

1930年代 均衡概念과 價格理論의 變化에 대한 學說史的 評價⁽¹⁾

洪 起 玄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를 전후로 하여 주된 분석대상이 되는 均衡概念이 장기균형에서 단기균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단순히 이론의 세련화 과정이 아니라, 신고전학과 경제이론이 지배적인 사조가 됨에 따라 생긴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보여 주려고 한다. 이에 따라 불완전경쟁하에서 장기균형의 존재가능성을 보여 주려고 한 시도들은 이론적 입지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서, 결국 Arrow-Debreu모형에 입각한 시점간 일반균형이론이 신고전학파의 표준적 이론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학설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립되는 이론인 Sraffa의 생산가격이론은 별개의 학파로 자리 잡게 되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1. 머리 말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일어난 가격이론상의 변화를 이론적, 역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이후의 경제학의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잘 알려지다시피 1930년대는 가격이론상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된다. 우선 불완전경쟁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이 생겼다. 이론적으로는 1926년 Sraffa(1926)의 논문 ‘競爭條件하에서의 規模의 法則 (Laws of Returns under Competitive Conditions)’에서, 규모의 경제와 완전경쟁적 장기균형이란 개념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현실적으로는 각종 형태의 독과점 기업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진 상태에서 영국의 Robinson 여사와 미국의 Chamberlin 교수에 의해 不完全競爭均衡이란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상 학설사상 ‘不完全競爭革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변화가 가격이론의 핵심구조를 변화시킬 정도로 혁명적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다음으로 왈라스적 一般均衡理論의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Walras(1874)에 의해 제시된 일반균형이론은 이탈리아의 Pareto, 미국의 Fisher(1907) 등에 의해 간헐적이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1930년대에 획기적 발전을 위한 발판

(1) 본 논문은 수암장학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작성된 것으로 지원기관과 논평을 해 준 고려대 박만섭교수와 경제학사학회 회원들, 그리고 연구 시 도움을 준 조교들에게 감사드린다.

을 마련하게 된다. 수학 분야에서는 일반균형의 존재증명에 적용되는 정리들이 개발되었으며, 경제이론 면에서는 時點間 一般均衡(intertemporal general equilibrium)이란 개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1950년대에 마무리되면서 新古典派的 價格理論의 표준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Arrow-Debreu 模型으로 자리 잡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新古典派的 一般均衡理論이 경제학의 주류이론으로 되는 데까지 이어진다.

또 한편 신고전학파의 득세에 따라 밀려난 古典派的 生産費說을 따르는 학자들도 존속하고 있었는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Sraffa(1960), Eatwell(1977), Milgate(1982) 등 소수이지만 독자적인 학파를 형성하여 왈라스적인 일반균형이론과는 대립되는 일반균형적 분석을 제시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촉발된 이론적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왈라스적 일반균형이론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연유는 무엇인지를 학술사적으로 탐구하고, 변화의 의의를 평가하려고 한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왜 古典派的 生産費 價格理論은 경제학의 주류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었는지, 또 현실적인 대안인 不完全競爭理論은 왜 표준 모형이 되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과학사적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복합적인 질문이므로 한 가지 답만이 제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론의 변화할 때 적용하는 (1) 이론 내부의 문제점, (2) 현실 적용력의 정도, (3) 사회적 영향과 정치적 의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첫째, 규모의 경제와 완전경쟁 장기균형의 양립불가능성이란 이론적 모순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변화가 필요한지, 둘째, 不完全競爭이란 보다 현실적 가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표준모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고전과적 생산비론이나 불완전경쟁모형에 비해서 왈라스적 均衡價格理論이 사회적으로 더 수용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하고자 한다.

물론 이 논문의 목적상 주로 첫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지만, 나머지 두 가지 문제도 배경적인 요인으로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다음 장에서는 Sraffa(1926) 논문을 중심으로 1930년대 가격이론 변화의 배경과 Sraffa 논문의 의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Sraffa의 논문이 단순히 규모의 경제와 완전경쟁 장기균형의 양립불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학술사적으로 서로 연원이 다른 두 개념, 즉 規模의 經濟라는 개념과 規模의 非經濟(diseconomies of scale)이라는 개념을 같은 차원에서 경쟁가격 이론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요소를 가상하고 있다는 근본적 비판을 하고 있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一般均衡理論의 변화를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일반균형이론의 자체

이론의 발전이라는 요인과 함께, 반드시 논리적 관계가 없어 보이는 不完全競爭理論의 개발도 사실은 일반균형이론의 발전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분석방법상의 편향성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즉 완전경쟁 장기균형하에서 수익률이 균등화되는 것과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비경제가 양립되지 않기 때문에, 完全競爭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長期均衡 개념을 버리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Garegani(1960), Eatwell(1977), Milgate(1982) 등의 스라파주의적 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불완전경쟁혁명과 왈라스적 일반균형이론은 양립불가능성문제를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이론체계로 통합되기 어려운 이론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1930년대 이후 가격이론의 변화가 결국 왈라스적 一般均衡理論, 不完全競爭理論, Sraffa의 生産費價格理論의 세 가지 방향을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 중 왜 왈라스적 일반균형이론이 학계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론적, 현실적 등 복합적 요인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마지막 장은 간단한 요약과 시사점을 담고 있다.

2. 背景的 說明

2.1. 理論的 · 現實的 背景

일찍이 Shackle(1967)은 자신의 저서 제목이 시사하듯이, 1930년대 전후의 기간(1926~1939)을 高級理論의 時代(The Years of High Theory)라고 이름을 붙인 바 있다. 그는 1930년대를 전후하여 새로운 이론적 발명품이 많이 개발되었다고 보면서, Sraffa의 1926년 논문에 의해 촉발된 不完全競爭革命, 무차별곡선의 광범위한 적용, 화폐적 균형 개념의 등장과 巨視經濟學의 업적, 경제성장과 변동이론의 개발, 투입산출분석의 개발 등의 업적을 열거하고 있다. 과연 Shackle의 표현대로, 현재 교육되고 있는 경제학 분야에서 微視經濟學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교과목이 이 당시에 개발된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으로 Sraffa의 1926년 논문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상당히 크게 보인다. Sraffa는 이 논문에서 규모의 경제와 완전경쟁하 長期均衡概念이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당시 대두되던 대규모 장치산업 중심의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는 기술적 변화, 그리고 독과점 산업의 등장을 고려하여 불완전 경쟁에 대한 관심이 이론연구와 경제사연구에서 증대되었다.

이러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영국과 미국의 선도적 이론가들이 獨寡占企業 行動에 관한

이론적 분석들을 제시하였다. 그 대표적인 업적의 하나가 바로 잘 알려진 대로 영국 경제학자 Robinson(1933)의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이다. 이 책은 Sraffa(1926)의 논문을 포함하여 1930년까지 Harrod, Robertson, Shove 등이 쓴 *Economic Journal*상의 논문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이 책에서는 각 기업의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독자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되 서로 제품 간에 어느 정도 대체가능한 경우인 불완전 경쟁 상태에서는 초과수익이 사라지는 長期均衡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는 독자적으로 미국의 Chamberlin(1933)은 *Economics of Monopolistic Competition*이라는 책에서 이론적 내용에서는 거의 유사한 성과를 발표하였다. 우선 Chamberlin은 아무리 충분한 다수의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제품질의 차이에 의해 어느 정도 독자적인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를 확보하므로 完全競爭 상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유사한 상품을 가진 다수의 경쟁자가 있을 경우 기업이 광고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製品差別化를 위해서인데, 이 경우 결국 長期均衡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Robinson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Robinson과 Chamberlin은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과학사상 독립적이고도 동시적인 “多數의 發見”(multiple discovery)의 전형적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론체계상 그리고 현실적 변화상 연구방향에서 유사한 연구를 촉발하는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물론 Robinson은 이론가로서 당시 均衡理論 정립에 더 관심이 많았고, Chamberlin은 産業組織에 대한 실제적 연구자로서 경쟁자 수가 다수에서 소수로 갈 경우에 생기는 獨寡占構造의 현실적 변화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차이가 있다.⁽²⁾

그렇지만 당대의 일급 학자에 의해서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여 같은 방향으로 이론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不完全競爭革命”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이론의 기본구조를 크게 바꿀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그 변화는 완성되지 못한 “不完全革命”, 아니면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非革命”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2.2. Sraffa論文의 意義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통상적으로 Sraffa(1926)의 논문은 규모의 경제와 완전경쟁하 장 기준개념이 서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를 바꾸어야만 논리적 모순이 해소될

(2) 이 점에 대해서는 Robinson(1934) 및 Kuenne(1987)을 참조하라. 그리고 양자간의 차이는 개인 연구경력과 가족기업 중심의 영국에 대비되는 대규모 독과점 기업 위주의 미국이란 환경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 있다는 식으로 소개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兩立不可能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不完全競爭 均衡의 개념이 제시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Sraffa 논문의 취지 전체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사적 연구의 입장이다. Newman and Vassilakis(1988)에서도 정리되어 있듯이 Sraffa는 단순한 논리적 모순을 넘어서서, 部分均衡分析이라는 틀의 문제를 방법론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우선 Sraffa는 수확체감 원리와 수확체증의 성질은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도입된 것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시작한다. 즉 收穫遞減의 原理(law of diminishing returns)는 18세기경에 농업부문에 있어서 관찰된 바 제한된 토지에 계속 투입을 가하면 추가되는 생산물의 양이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는 성질이다. 이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요인에 의해 생산성에 제한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收穫遞增의 原理(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란 스미스의 『國富論』 분업의 원리에서 잘 관찰했듯이, 규모 증가에 따라 기업내부에서 작용하는 생산성 향상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 단순히 한 생산요소가 고정된 경우에 수확체감이 발생하고,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일 때 수확체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수확적인 양립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기업의 사전적 의사결정을 고려할 때 반드시 현실적인 양립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분균형분석에서 시장에서 상대적인 비중이 적은 기업의 행동을 관찰할 때 기업내부에 존재하는 요인은 사전에 의사결정의 고려사항이 되는 반면, 기업외부에 존재하는 요인은 사전적 의사결정 요인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企業의 意思決定이란 차원에서 일반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비경제나 完全競爭 가정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Sraffa의 주장이다.

만약 規模의 非經濟 요인이 기업내부에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기업외부에 있다면 이것이 기업 측이 인식할 수 있는 요인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된다. 만약 기업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균형점을 찾아가는 데 안정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고, 만약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요소시장에서 이미 그 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므로 완전경쟁 가정과 어긋날 수 있다.

다른 한편 規模의 經濟는 기업내부에 있다면 경쟁균형점이 찾아지지 않고, 외부에 있다면 역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한 Sraffa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Newman and Vassilakis(1988)는 다음과 같은 命題로 정리하고 있다.

- (1) 완전경쟁은 개별생산자의 規模의 非經濟와 양립할 수 없다.

- (2) 완전경쟁은 外部效果와 양립할 수 없다.
- (3) 완전경쟁은 規模의 經濟와 양립할 수 없다.
- (4) 완전경쟁은 수익에 대한 일정가정과 외부효과의 부재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Economic Journal*에 게재된 Sraffa(1926)의 논문에서는 獨寡占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대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윤건수(1997), Roncaglia(1977), Maneshi(1986)의 연구에 따르면, 1925년에 발표된 이탈리아어 논문에서는 Sraffa는 규모의 문제와 가격결정의 문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³⁾ 이러한 생각이 아마도 Sraffa(1960)가 제시한 古典派的 生産價格理論에서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Sraffa의 비판은 독점적 경쟁이론을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제기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하에서 수익률균등화를 전제한 長期均衡 개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설이 아닌 다른 가격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3. 一般均衡 概念의 開發과 短期均衡價格理論

3.1. 長期均衡과 短期均衡: 理論的 論議

고전과 이래 가격이론에서 균형상태는 長期均衡을 전제하였다. Smith(1776)의 『국부론』에서는 모든 요소의 수익률이 동일한 自然價格(natural price)이 均衡點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상태는 신고전학과 초기의 Walras(1874)나 Jevons(1871)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었다. Walras(1874)는 각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短期均衡點을 일반균형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새로운 투자자금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되므로 결국 모든 부문에서 수익률이 균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Marshall(1890)도 단기균형점이 결국 장기균형상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구조는 長期均衡은 短期均衡의 하나의 특수한 상태, 즉 부분집합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반드시 타당한 생각은 아니다. 만약 무한탄력적 노동공급과 같은 경우를 상정하면 장기균형은 존재하더라도 단기균형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므로, 이론적으로 장기균형이 단기균형의 부분집합이라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3) Sraffa(1925) 논문의 영역본은 <http://cepa.newschool.edu>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단기균형과 장기균형은 하나가 다른 것을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價格理論의 틀 속에서 생각해 보자. 만약 시점간 일반균형이론에서 제시되듯이, 한 재화의 수익률이 시점간 가격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수익률은 정해진다.

$$\begin{aligned} & \text{특정재화의 기간별 수익률}(r_n) \\ &= \text{특정재화}(n) \text{의 시점간 균형가격}-1 \\ &= [p_n^t/p_n^{(t+1)}]-1 \end{aligned}$$

이 때 왈라스의 一般均衡理論에서처럼, (i) 선호(시간선호 포함), (ii) 기술(시점간 생산 함수 포함), (iii) 초기 부존자원이 주어진다면 재화거래량과 가격들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 재화의 수익률이 다른 재화의 수익률과 같다는 조건은 해의 일부가 아니다. 말하자면, 일반균형이론에서 결정되는 가격체계에서는, 우연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r_i 은 r_j 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需要供給說的 價格理論에서 결정되는 것은 단기균형으로서 장기균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r_i = r_j$)와 같은 조건을 부가한다면, 이러한 부가적인 조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방정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관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Bliss(1975)나 Hahn(1982)의 지적대로, 이러한 조건이 도입되려면 초기 부존자원에 관한 가정들이 없어야 하면서 수량이 수익률을 균등화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즉 특수한 경우인 停滯狀態(stationary state)나 均齊狀態(steady state)를 전제해야만 수익률균등화가 성립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구조상 특성은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가, 오스트리아학파에 의해서 문제 제기됨으로써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설사적인 흐름을 검토를 해야만, 일반균형이론 자체발전의 역사도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균형개념의 변화과정에 주목하여 가격이론구조의 역사를 정리한다면 다음 <表 1>과 같이 된다. 즉 Adam Smith(1776)의 『국부론』 이래 지배적인 경제학이 된 古典派나 1870년대 한계혁명 이후 주류경제학이 된 新古典派에서나 공히 1930년대까지는 長期均衡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거나, 적어도 장기균형과 단기균형의 불일치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1930년대 이후 新古典派的 需要供給說에서는 장기균형을 설명할 필요가

〈表 1〉理論과 均衡概念 變化의 時期的 區分

시기	1776~1870년	1870~1930년	1930년 이후
학파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론	생산비설	수요공급설	
분석대상	장기균형		단기균형
주요 학자	Smith, Ricardo	Walras, Marshall	Hayek, Hicks

없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뚜렷해진 것이다.

3.2. 時點間 一般均衡 概念의 提示: 하이에크의 寄與

일반균형적 가격이론을 시점간 분석에 적용한 것은 사실 Fisher(1907)의 利子率理論이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졸고(1996)에서도 밝혔듯이, Fisher는 양의 이자율이 양의 시간선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무차별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분석은 한 재화의 시점간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하였고, 다재화의 시점간 거래가 가능한 경우로 확대하지는 않았다.

다재화의 시점간 거래에 대해서 일반균형적 분석을 통해 時點間 一般均衡(intertemporal general equilibrium)이란 개념을 명시적으로 개발한 사람은 Milgate(1979)의 연구가 밝혀냈듯이 Hayek(1928)이다. 그는 1928년 독일어로 발표한 논문에 시점간 거래가 가능한 경우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현재재와 미래재 간의 상대가격이 결정되며 이러한 가격체계를 時點間 均衡價格體系라고 불렀다. 나아가 Hayek는 이 개념을 자본과 이자의 설명에 사용하였다.

Milgate(1979)는 하이에크가 시점간 균형개념을 개발한 이유는 장기균형 개념과 수요공급설이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못하므로, 需要供給說에서는 수익률균등화되지 않는 상태인 短期均衡 개념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적 필연성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비해 Boehm(1986)은 하이에크가 시점간 균형개념을 개발한 것은 오스트리아적 시간 개념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고 해석한다. 동시적 균형개념에서 동태적 조정과정 분석을 위해서 중간 단계로서 시점간 균형개념이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개념의 기원에 대해서는 개발자의 명시적 언급이 없고, 또한 명시적 언급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는 한 어떤 한 가지 해석만을 지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론 개발의 동기 면에서는 반드시 이론 내적 필연성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Hong(1989)에서는 이론적 발전과정상 Boehm(1986)의 설명이 더 타당한 것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1930년을 전후하여 需要供給說을 논리적으로 계속 적용하여 가격이론을 탐구한 결과 시점간 일반균형체계가 성립하였고, 이 체계하에서는 收益率均等化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격이론 구조상 변화가 가져다 주는 학설사적 의의를 생각해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

3.3. 標準的 一般均衡模型의 完成과 外延的 擴大

새로운 균형개념의 제시와는 별개로, 왈라스적인 일반균형 이론 자체에서 해결되지 못한 균형의 존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새로운 업적들도 1930년대에 등장하였다. Roy Weintraub(1977)의 서베이에서 언급하듯이, 대표적인 예로 Wald는 1936년 독일어로 발표한 논문 “수리경제학에서 방정식 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競爭均衡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von Neumann도 1937년 독일어로 쓴 논문 “일반경제균형의 모형”에서 動態的 成長模型에서 적정성장경로의 존재를 밝혔다.

영어권에서는 Hicks는 1939년에 발간한 책 『價値와 資本(Value and Capital)』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최적화문제와 수요-공급 관계를 잘 설명하였다. 또한 균형의 안정성 문제에 관련하여 대체성 정도가 중요함을 밝혀냈다. 이러한 업적들은 不動點 定理(fixed-point theorem) 등 수학적 업적과 더불어, 결국 1950년대 Arrow-Debreu 모형으로 이르는 표준적 일반균형모형에 이르는 과정의 토대가 된다. 이 Arrow-Debreu 모형에서는 다수의 참여자가 존재하는 完全競爭, 상품의 가격과 질에 대한 完全情報(full information), 모든 재화의 미래시장이 존재하는 完備市場(complete market) 조건하의 시점간 일반균형모형이란 가장 추상적인 형태로 완성되어 신고전파적 가격이론의 출발점이자 표준모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균형개념의 변화와 관련하여 新古典派的 價格理論의 특성에 대해서 신고전파 이론가 내부의 뚜렷한 자체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960년대 소위 다양한 자본재들을 단일한 자본량으로 측정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이론구조상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발생한 ‘資本論爭(capital controversy)’ 과정에서 사실 이론구조상 불필요하게 신고전파 이론가인 Samuelson과 Solow 등이 단일의 이자율을 설명하기 위한 자본개념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들의 고안물들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Sraffa(1960) 등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그 타당성이 의심받게 된다.

줄고(1991)에서도 밝혔듯이, 單一의 利率率이란 長期均衡 개념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장기균형이란 전제를 버리면, 단일 이자율을 설명하기 위한 단일 척도인 資本이란 개념도 필요 없게 된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 이르면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는 과거의 신고전파 경제이론가의 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공격하는 듯한 논의가

구조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Stiglitz(1973, p. 13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재화모형에서는 … (중략) … 재평가에 관련한 기이한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신고전파적 분석은 이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는 Wicksell, Uzawa, Meade, 그리고 초기 저작에의 Solow와 Samuelson이 신고전파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언급에서는 마치 1재화모형에서 다재화 모형으로 이론의 발전하면서 “資本의 限界生産性=利率”과 같은 초기의 간단한 명제들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론구조상 수익률 균등화 가정이 필요한 長期均衡點이 더 이상 경제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부문 간 수익률이 다르지만 단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短期均衡點이 분석대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 해석된다.

4. 價格理論 變化에 대한 方法論的 評價

4.1. 論議의 構造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가진 一般均衡理論의 발전과 均衡概念의 변화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확인한 1930년대 전후에 발생한 가격이론상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Sraffa(1926) 논문에서 나타나듯이 규모의 경제와 완전경쟁 장기균형개념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뚜렷이 부각되어 Robinson, Chamberlin 등에 의해 不完全競爭均衡理論이 개발되었다.

둘째, 一般均衡理論 자체는 Fisher, Hayek, Wald, Hicks 등에 의해서 일반균형이론의 점차 골격을 잡아갔다. 특히 Hayek(1928)에 의해 時點間 一般均衡이란 개념이 최초로 제안되었다.

셋째, 需要供給說的 價格理論에서는 결국 수익률이 서로 다른 상태인 단기균형을 설명할 수밖에 없으며, 고전과 이래 분석대상인 장기균형 상태는 수요공급설과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는 사실 10여 년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났지만,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된 문제이다. 그리고 단순한 논리상 보면, 그 변화의 귀결은 다음 세 가지 이론체계라고 정식화할 수 있다. 즉 (1) 1950년대에 이르러 표준적 이론에 되는 Arrow-Debreu의 —

〈表 2〉 왈라스 模型과 Sraffa 價格理論의 比較

구분	왈라스적 수요공급설	Sraffa 가격이론
분석대상	단기균형	장기균형
외생변수	선호, 기술, 부존자원	기술, 생산량, 분배관계
내생변수	상대가격, 거래량	생산가격, 분배변수 중 나머지 1개
특징	가격, 거래량, 분배변수를 동일한 논리로 설명	가격, 생산수준, 분배관계를 각각 별개의 논리로 설명

般均衡理論, (2) 불완전경쟁혁명에 의해 개발된 獨占的 競爭模型, (3) 장기균형개념을 보존한 Sraffa식의 古典派的 生産費理論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 중에서 가장 대립되는 왈라스적 一般均衡理論과 Sraffa의 生産費說을 비교하면 다음 〈表 2〉와 같이 정리된다. 즉 왈라스적 이론은 선호(시간선호 포함), 기술, 부존자원이란 세 가지 여건을 주어진 것으로 할 때, 설명하려는 경제적 현상을 모두 수요-공급이란 동일한 틀로서 설명하려는 데 비해서, Sraffa 이론에서는 주어진 생산량과 기술하에서 가격은 일종의 장기균형분석을 통해서 비해서, 분배관계는 제도적으로 결정되고 생산량은 유효수요의 원리라는 별개의 논리로 설명하려는 식이다.

물론 여기에 추가하여 오스트리아학과처럼 균형상태보다는 조정과정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이론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1930년대 이론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이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세 가지 이론적 대안들 중에서 왜 첫 번째 新古典派的 時點間 一般均衡理論이 지배적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것이 다음 절의 과제이다.

4.2. 方法論的 評價

어떤 이론이 왜 학계에서 중심적 이론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이론 자체의 특징이나, 학계의 속성, 그리고 사회적 배경까지 다양한 요인이 등장한다. Arrow-Debreu模型이 왜 표준모형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왜 가격설명이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가 되었는가, 왜 美國經濟學이 강하게 되었는가, 왜 數學的 접근이 많이 쓰이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가장 추상적인 이론을 표준모형으로 생각하는 인식상의 습관을 갖고 있는가, 등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는 것은 이 논문의 과제도 아니며, 개인연구자의 능력에도 벗어난 일이다. 여기에서는 질문을 한정시켜서 왜 不完全競爭理論이나 Sraffa이론이 주류경제학적 표준모형처럼 크게 득세하지 못하였는가라는 정도에 대하여 해답을 찾

아보려고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新古典派 理論의 상대적 강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不完全競爭理論이 표준이론이 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답할 수 있다. 그것은 일단 불완전경쟁개념은 完全競爭 가정을 전제로 해야만 나오기 때문에 완전경쟁 상태를 분석하고 나서 불완전경쟁을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불완전경쟁이론을 출발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물론 이와 같이 단순한 답은 과연 完全競爭 假定이 현실적이 아닌 사례가 많이 나타날 때 설득력 있는 답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Friedman(1953)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에서 제시되었듯이, 가정의 현실성보다는 예측의 유용성이 이론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진공상태에서 성립하는 물리법칙이 마찰 상태에서 적용되는 물리법칙보다 그 적용범위가 훨씬 일반적이라는 점은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Arrow-Debreu이론의 일방적 우위가 모두 타당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는 연구자의 세계관과 편견과 같은 과학외적 신념의 문제도 작용한다. 사실 Chamberlin의 연구의도에서 나타나듯이 불완전경쟁 이론에서 獨占的 競爭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수가 존재하는 獨寡占을 연구하는 경우, 실제 독과점 기업의 행동은 利潤最大化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Mongine(1992)의 연구에서도 보이듯이, 1940년대에 이르러서 독과점 기업의 가격이론을 마크업(mark-up 또는 full-cost pricing)으로 설명하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를 둘러싸고 이론가들 간에 논쟁이 발생하였다. 마크업 행동은 사실상 최적화행동을 이론의 기본전제로 삼는 신고전과 경제학으로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단적인 예로 Friedman(1953)은 실제 개별기업의 행동이 이윤최대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윤최대화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경쟁과정에서 진화적으로 이윤최대화 기업만 생존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독과점 기업이 기준이 된다면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허물어지게 된다. 말하자면 不完全競爭理論이 표준모형으로 될 경우 非最適化 行動이 통상적 행동으로 될 가능성이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론가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순서에 따라 Sraffa와 같은 古典派的 價格理論이 왜 지배적 이론이 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졸고(2002)에서 Sraffa이론의 한계에 대해서 밝혔으므로, 이론적인 문제 외에 방법론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Sraffa이론은 長期均衡理論 전통적 개념을 설명하므로 이론적 권위 면에서는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장기균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이 그리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초과수요가 있을 때 상대가격이 올라가고, 자원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되는데 비해서, 자본의 이동을 통해 수익률이 균등화되는 과정은 그러한 방향의 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경향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합의가 일어나기 어려운 문제이다.

더군다나 生産規模의 문제와 價格決定의 문제를 분리하여 고려한다는 Sraffa식의 접근은 이론구조상 편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규모와 가격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데 불리하다는 점에서 이론의 유용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Burmeister(1977)의 지적대로 기술이 변화하지 않는 정태적 상태에서는 가격결정이론으로서 규모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술변화를 전제할 경우 그 한계가 생긴다.

물론 이러한 이론적 문제점에 더하여 단일의 수익률을 전제하면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게 되므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이 이론을 기피하게 된다는 정치적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不完全競爭 혁명이 결국 실패한 혁명이 되고, 고전과 장기균형개념을 복원하려는 Sraffa 주의자의 노력도 큰 세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했으므로, 남은 부분을 통해 新古典派 經濟學의 우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신고전과 경제학의 우위는 가정의 현실성이라기보다는 추상적 이론구조의 확대가능성과 최적화행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단순성이 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Kuhn(1977)이 말하는 이론체계의 다섯 가지 평가 기준인 논리적 일관성, 현실적 적합성, 단순성, 연구의 범위, 연구 성과의 풍부성 중에서 신고전학파의 득세는 현실적합성보다는 단순성, 연구범위보다는 성과의 풍부성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다.

5. 맺음 말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전후의 價格理論에 대해서 학설사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변화의 의의를 평가해 보았다. 변화과정상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26년 Sraffa 논문의 의도는 단지 규모의 경제와 완전경쟁 장기균형 개념이 모순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부분균형분석을 통해 완전경쟁과 규모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한계점이 있음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Sraffa의 논문과 기타 저작들, 그리고 현실적 변화에 의해 촉발된 不完全競爭理論

의 개발은 부분적으로 성공한 듯 보였으나, 이를 ‘不完全競爭革命’이라고 부르기에는 흠한 것이었다. 불완전경쟁균형은 다수 경쟁자가 존재하면서 상품의 질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完全競爭 가정 중 하나를 완화한 형태로서 교과서에 소개되었고, 결국 완전경쟁모형을 변용한 것 정도의 이론적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불완전경쟁모형이 현실적인 가정을 가진 표준모형으로 높이 평가되지 못한 이유는 완전경쟁이 전제되어야 더 추상적이고 적용범위가 큰 이론체계가 나온다는 과학방법론에 기인하는 점도 있지만, 자칫하면 利潤最大化 가정이 파괴되어 非最適化 행동이 도입될 위험성을 기피하려는 문화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보인다.

셋째, 1930년대 時點間 一般均衡理論이 개발됨으로써 需要供給說에서는 수익률이 균등화되지 않은 상태인 단기균형 상태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장기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Sraffa의 古典派의 生産費說과 같은 다른 이론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서서히 인식되어 갔다. 말하자면 1870년대 한계혁명 이후 이론과 분석대상의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라지면서, 이제 수요공급설은 단기균형을 생산비설은 장기균형을 설명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넷째,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는 Arrow-Debreu模型이 표준적 모형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규모와 가격결정 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Sraffa모형은 이론적·현실적 한계에 의해 상대적 입지가 밀리게 된다. 비록 Sraffa모형이 전통적 경제학 분석방법을 계승하고 있고, 1960년대 ‘資本論爭’이란 전투에서는 신고전파적 이론체계와 단일의 자본 개념이 양립불가능한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부분적 승리를 거두었으나, 전반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1870년대 이후, 특히 1930년대 이후 경제학 이론의 구조는 부지불식간에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 당시 형성된 이론구조가 적어도 2차 대전 이후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이러한 추세는 게임이론이나 실험경제학에서 제시되는 대안적 이론들이 Arrow-Debreu模型을 완전히 대체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화: (02)880-6379

팩스: (02)886-4231

E-mail: hongk@snu.ac.kr

參 考 文 獻

- 윤건수(1997): “마살과 스라파: 스라파 초기 논문의 학설사적 성격,” 한국경제학사학회 발표논문.
- 홍기현(1991): “현대자본논쟁의 과학방법론적 평가,”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30. 1**, 35-59.
- _____ (1996): “뵘바베르크와 피셔간의 이자율논쟁의 학설사적 의의,”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35. 2 · 3**, 339-352.
- _____ (2002): “스라파 장기균형가격이론의 성과와 한계,” 『경제논집』, **41. 4**, 381-401.
- Boehm, Stephan(1986): “Time and Equilibrium: Hayek’s Notion of Intertemporal Equilibrium Reconsidered,” in Kirzner(ed.), *Subjectivism, Intelligibility and Economic Understanding*,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 Bliss, C. T.(1975): *Capital Theory and Distribution of Income*, Amsterdam.
- Burmeister, E.(1977): “The Irrelevance of Sraffa’s Analysis without Constant Returns to Scal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5**.
- Chamberlin, E. H.(1933):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artly reprinted in P. C. Newman et al.(ed.)(1954), *Source Readings in Economic Thought*, New York, Norton and Co., 605-22.
- Eatwell, J.(1977): “The Irrelevance of Returns to Scale in Sraffa’s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5**, 61-68.
- Fisher, Irving(1907): *The Rate of Interest*, New York, Macmillan Co..
- Friedman(1953):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in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Richard Irwin Co..
- Garegnani, P.(1960): *Il Capitale nelle Teorie della Distribuzione*, Milan, Giuffrè, Japanese translation by H.Yamashita(1966).
- Hahn, Frank H.(1982): “The Neo-Ricardian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6**, 353-74.
- Harris Donald J.(1988): “On the Classical Theory of Competi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2, 1**, 139-67.
- Hayek, F. A.(1928): “Das Intertemporale Gleichgewichtssystem der Preise und die Bewegungen des ‘Geldwrtes’,” English translation in R. McCloughry(ed.)(1984), *Money, Capital, and Fluctuations*,

- Early Essays, 71-117.
- Hong, Keehyun(1989): “A Second Look at Two Early Capital Controversies,” *The Korean Economic Review*, **5**, 15-36.
- Jevons, Stanley(1870):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Reprints of Economic Classics by August M. Kelly Bookselle(1965).
- Kuenne, Robert E.(1987): “Edward Hastings Chamberlin,” in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Ltd., Vol. **1**, 398-401.
- Kuhn, Thomas(1977): “Objectivity, Value Judgement, and Theory Choice,” in T. S. Kuhn(ed.), *The Essential Tension*, 319-391.
- Maneshi, A.(1986): “A Comparative Evaluation of Sraffa’s ‘The Laws of Returns under Competitive Conditions’ and its Italian Precursor,”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0**, 1-12.
- Marshall, Alfred(1890):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Press Ltd..
- Milgate, Murray(1979): “On the Origin of the Notion of ‘Intertemporal Equilibrium’,” *Economica*, **46**, 545-65.
- _____(1982): *Capital and Employment: A Study of Keynes’s Economics*, London, Academic Press.
- Mongine Phillippe(1992): “The “Full-Cost” Controversy of the 1940s and 1950s: A Methodological Assessmen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24**, **2**, 311-56.
- Newman Peter, and Spyros Vassilakis(1988): “Sraffa and Imperfect Competi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2**, **1**, 37-42.
- Robinson, Joan(1933): *The Theory of Imperfect Competition*, London, Macmillan.
- _____(1934): “What is Perfect Competi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reprinted in W. Breit, and H. Hochman(eds.), *Readings in Microeconomics*,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 Roncaglia, A.(1977): “The Sraffian Revolution,” in S.Weintraub(ed.), *Modern Economic Though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63-179.
- Smith, Adam(1776): *The Inquiry into the Cause and Nature of Wealth of Nations*, 김수행 역(1992), 『국부론』, 동아출판사.
- Sraffa, Piero(1926): “The Laws of Returns under Competitive Conditions,” *Economic Journal*, Dec., reprinted in P. C. Newman *et al.*(eds.)(1954), *Source Readings in Economic Thought*, 592-604.
- _____(1960):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ras, Leon(1874): *Elements of Pure Economics*, translated by W. Jaffe(1954), George Allen & Unwin.

Weintraub, E. Roy(1977): “General Equilibrium Theory,” in S. Weintraub(ed.), 107-124.